**“병원이 병원을 돕는다”…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프로그램’ 시작**

2017년 10월 27일 –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최근 국내 병원 이름으로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현장의 병원을 후원하는 ‘후원병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 여러 분쟁 지역, 전염병과 의료사각지대에서 생명을 살리는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병원을 위해 병원 명의로 후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본격 시작했다. 현재 9개의 국내 병원이 프로그램에 동참했으며, 추가 참여 병원 또한 모집중이다.

국경없는의사회 윤지현 후원개발국장은 “한국의 병원이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의료 구호 활동에 동참하고 ‘병원이 병원을 돕는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당장 현장에 갈 수 없는 개원의 또한 도움이 시급한 사람들을 살리는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병원은 환자를 진찰 및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춘 병원 건물을 비롯해 환자를 찾아 다니며 치료하는 이동진료소나 응급 수술실로 운영되기도 하는 임시 구호 텐트 등이 있다. 이 병원들을 돕기 위해 국내 병원명으로 매달 정기 후원을 하거나 진료비의 일정 금액 또는 임직원 급여 일부 기부, 혹은 임직원과 환자들이 후원금을 모아 일시 기부하는 등의 프로그램 참여 방법이 있다.

첫 후원병원은 대전에 있는 ‘아이든 소아청소년과(원장 문은경)’로, 2015년 7월부터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을 병원 명의로 전환하면서 1호 후원병원이 되었다. 문은경 원장은 “개원 의사로 10년 넘게 작은 공간에서 감기 환자 중심으로 환자들을 접하던 중, 같은 진료도 환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기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후원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 창원시 ‘청음이비인후과’(원장 한창용) 또한 후원병원으로 참여하며 “평소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아프리카 등에서 의료 봉사를 할 계획”이라며 “개원의라서 지금 당장 의료 봉사 참여는 어렵지만 의사로서 국경없는의사회 후원을 통해 전쟁, 분쟁지역 및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병원 이름으로 일정 금액 이상 월 정기후원이나 일시 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에 병원명 게시 및 후원병원 현판 제공 등 감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경없는의사회 병원후원 웹페이지(<http://msf.or.kr/hospit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개발국

TEL 02)3703-3554, FAX 02-3703-3502, hospital@seoul.msf.org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명단**

아이든 소아청소년과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5, 4층)

파티마이비인후과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657번길 28 이엠시티빌딩 507호)

푸른성모이비인후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63-3 백상프라자 403호)

청음이비인후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42, 2층)

양준호정형외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39 동마빌딩 3층)

성모참플러스 정형외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63 EEU동신타워 604호)

강남명인한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23 초록빌딩 2층)

바른본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61)

모델라인의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98번길 15 제나프라자 7층)